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윤리와 사상

1.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란 더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이익이지만, 복종하고 섬기는 자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해(害)가 되는 것이며 부정의는 그와 반대된다.



갑

정의는 덕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합니다. 정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덕인지, 그것을 지닌 사람이 행복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을

- <보 기>
- ㄱ. 갑: 개인의 세속적 부와 권력으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ㄴ. 을: 무지를 자각해야 보편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ㄷ. 을: 선에 대한 참된 앎을 갖추어야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ㄹ. 갑, 을: 감각에 의한 경험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각자는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완전한 자립적 존재가 아닌 인간은 외부 대상에 의해 수동적인 감정에 예속되어 삶의 활동 능력이 감소하며 노예가 된다. 감정의 예속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일들이 필연적인 결과로 생겨났음을 영원의 관점 아래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당한 관념을 갖게 되고 자유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 ① 정신은 자유의지의 발휘를 통해 물리적인 육체를 조정한다.
 ② 자유로운 삶은 신의 결정론적 법칙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
 ③ 사유와 연장은 유일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일 뿐이다.
 ④ 물질적 세계의 사물들은 자연의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⑤ 슬픔은 자기 보존 노력의 감소에서 인식되는 정서이자 악(惡)이다.

3.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변의 본질을 가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唯]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衆生)들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현상에 대해 '이것은 다만 식(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눈병이 걸린 사람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머리카락이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다.

- ① 요가 수행은 깨달음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② 개인의 해탈과 함께 중생 구제에도 힘써야 한다.
 ③ 인식 작용과 무관한 객관적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
 ④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며 자성(自性)이 없다.
 ⑤ 마음의 작용에 따라 사물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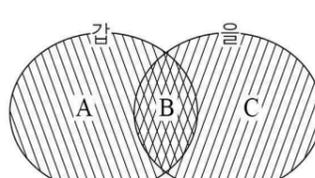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군자와 소인이 한결같으나 다만 그 구하는 방법의 도(道)가 다를 뿐이다. 우임금도 태어나면 서부터 군자는 아니며 수양을 거듭하여 꾸준히 노력한 뒤에야 본성을 변화시켜 덕을 완성한 것이다.
 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지극히 미미한데, 보통 사람들은 이 차이를 버리고 군자는 이 차이를 보존한다. 순임금은 사물의 이치에 밝았고 인륜을 잘 살펴서 인(仁)과 의(義)에 따라 실천했을 뿐, 인과 의를 억지로 실천한 것은 아니다.

- ① 갑: 성왕의 법도인 예(禮)로 인간 욕망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② 갑: 하늘은 만물 생성의 근원일 뿐 아니라 도덕의 근원이다.
 ③ 을: 인간의 선한 본성이 모두에게 온전히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을: 의로운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⑤ 갑, 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5.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마음 안에 모든 앎이 갖추어져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理)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 앎을 온전히 이루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窮究)해야 한다.
 을: 마음 밖에 물(物)이 없고, 마음 밖에 일[事]이 없으며, 마음 밖에 이가 없다. 격물(格物)은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본체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A: 마음이 없으면 사물의 이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A: 사유를 극복하여 순전한 마음을 보존해야 한다.
 ③ B: 마음은 선천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
 ④ C: 도덕적 수양을 통해 양지(良知)를 형성해야 한다.
 ⑤ C: 앎과 실천 간에는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의 구별이 있다.

6.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래 '이(理)에서 발한다, 기(氣)에서 발한다.'라는 말의 뜻은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는 것일 뿐이지, 결코 '사단은 이가 먼저 발하고 칠정은 기가 먼저 발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의 입장이 ㉠고 생각한다.

- ① 칠정의 연원은 사단의 연원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 ② 사단의 선함과 칠정의 선한 측면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 ③ 이는 발하는 까닭일 뿐 운동성을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④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를 때 발현되는 것이 정(情)임을 간과한다
- ⑤ 사단은 선천적인 것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서임을 간과한다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쾌락을 줄 때 가치를 지닌다.

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 속의 이방인이다. 그는 이성의 세계로부터 추방당한 자이고, 마음의 눈이 감겨 있는 자이다. 자신의 운명에 불만을 품고 모두에게 공통된 자연의 섭리에 대한 반항심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자는 우주의 종기이다.

- ① 갑: 덕(德)은 그 자체로 선(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② 갑: 참된 쾌락은 모든 자연적 욕구의 충족으로 가능하다.
- ③ 을: 진정한 자유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④ 을: 덕이 있는 삶은 공적인 삶을 회피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다.
- ⑤ 갑, 을: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이성적 숙고의 태도가 필요하다.

8.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나의 도(道)는 한울님의 뜻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상을 교화하는 것이다. 저마다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잡아[守心正氣]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교화가 이루어지리라.

을: 상생(相生)의 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을 뜯어고치고 신도(神道)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한을 푸는 것이다. 후천의 선경(仙境)을 열고 다스림과 말 없는 가르침으로 민생을 조화롭게 하여 세상을 고치니라.

- ① 갑: 서양 문물을 배격하고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지켜야 한다.
- ② 갑: 초월적 대상인 한울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같을 수 없다.
- ③ 을: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자각하여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을: 천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극(相剋)의 이치가 지배해야 한다.
- ⑤ 갑, 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이 도래[開闢]해야 한다.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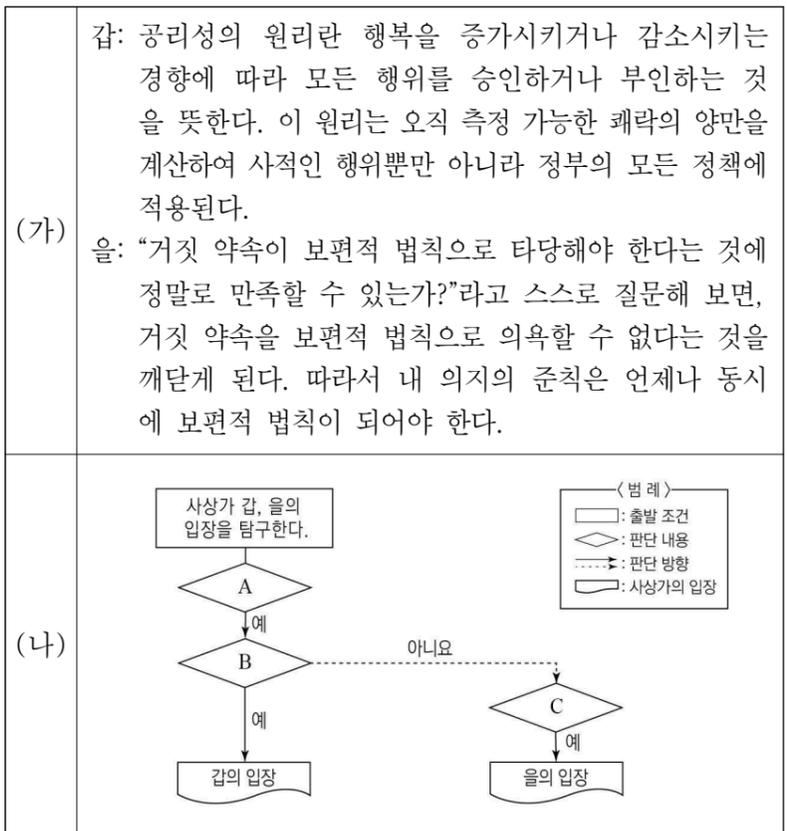
갑: 국가는 단순히 삶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지만 더 나아가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물임이 틀림없다.

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가를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하나의 인물 또는 한 집단의 인간들에게 부여하여 단일 의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다.

병: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작동할 수 있는 신탁된 권력이다. 만일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드러날 때 시민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① 갑: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적 공동체이다.
- ② 을: 이성은 자연 상태의 공포로부터 평화를 수립하도록 명령한다.
- ③ 을: 자연 상태의 혼란은 자연권의 적극적인 행사로 극복 가능하다.
- ④ 병: 사회계약은 자연권 모두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을, 병: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가 권력은 제한될 수 있다.

10.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도덕적 행위는 보편적 도덕 기준에 근거해야 하는가?
- ㄴ. B: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유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가?
- ㄷ. C: 행위 결과가 의무에 일치하지만 하면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 ㄹ. C: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은 양립이 가능한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11.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주체적인 결단을 회피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을: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자신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존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인간을 세계 내에 있는 구체적인 존재, 즉 '현존재'라고 부른다.

병: 인간은 사물과 달리 미리 결정된 본질을 지니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① 갑: 단독자에게 진리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 ② 을: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존재이다.
- ③ 병: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갖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 ④ 갑, 병: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실존의 회복이 가능하다.
- ⑤ 갑, 을, 병: 불안이라는 감정은 실존적 이해의 중요한 계기이다.

12.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의예지의 이름은 본래 인간의 행사(行事)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마음의 현묘한 이(理)가 아니다. 만약 인의예지를 마음 속에 있는 이치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본래의 뜻이 아니다.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다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명(靈明)일 뿐이며, 이는 동물에게 정해진 마음이 있는 것과 같지 않다.

— <보 기> —

ㄱ. 자주지권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다.
 ㄴ. 인간의 욕구는 생존과 도덕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ㄷ. 덕은 실천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내재된 것이다.
 ㄹ. 인간은 마음 안의 경향성을 따를 때 언제나 선을 추구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성인(聖人)은 이름과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독단과 교묘함도 버린다. 자연의 도(道)를 깨달아 고요한 경지에서 노닐고 자연의 본성을 받아들인다.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일조차도 삼가게 될 때 공명(空明)*의 마음 상태에 이른다.

*공명: 고요한 물에 비친 달 그림자

- ① 도덕규범에 따라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②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
- ③ 도의 관점에서 보면 분별적 관념들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 ④ 예(禮)로써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 ⑤ 절대 자유의 경지를 위해 시비(是非)의 판단이 필요하다.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는 정념과 이성의 대립을 말할 때, 엄밀하게 그리고 철학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理性)은 정념(情念)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정념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

을: 진리 탐구를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여 보아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내게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보 기> —

ㄱ. 갑: 도덕적 시인과 부인의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다.
 ㄴ. 갑: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를 제공할 수 없다.
 ㄷ. 을: 사유를 통해서 확고부동한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
 ㄹ. 갑, 을: 경험과 관찰을 근거로 참된 진리를 파악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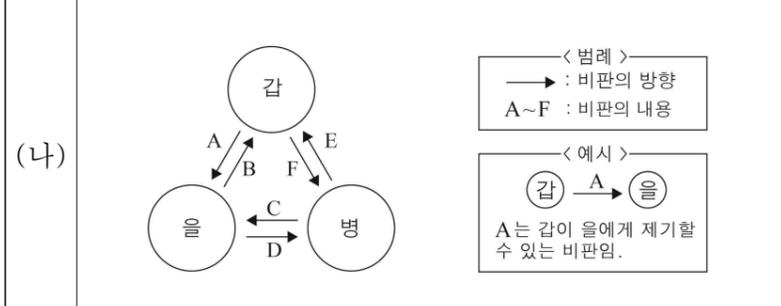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정부는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감독하여 사회 이익에 부합하도록 인도할 필요가 없으며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조화롭게 작동한다.

을: 공산주의자의 당면 목적은 프롤레타리아를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부르주아 지배를 타도하며 프롤레타리아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 데 있다.

병: 정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빈곤과 실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① A: 정부의 공공지출로 빈부 격차를 완화시켜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D: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의 실현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④ E: 사익의 추구가 사회 전체의 부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F: 정부의 시장 경제 활동에 대한 개입이 국익에 이로움을 간과한다.

16.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약속 지키기, 성실, 호의에 대한 감사, 선행, 정의, 자기 계발, 해약 금지 등의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조건부 의무로서 잠정적으로 구속한다. 만약 도덕적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더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 의무로 드러난다. 실제적 의무는 작은 선(善)보다 큰 선을 산출하는 행위일 때, 무심결에 이루어진 행위보다는 심사숙고한 행위일 때 채택된다.

- <보 기> —
- ㄱ. 상황의 특수성은 올바른 도덕 판단을 위해 제외되어야 하는가?
 - ㄴ.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실제적 의무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가?
 - ㄷ. 절대적 구속력을 지니는 단일한 도덕 법칙이 존재하는가?
 - ㄹ. 도덕적 의무들이 상충할 때 더 큰 선을 산출하는 행위를 우선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익보다 중요한 공익이란 없고, 공동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공동체는 공동선을 자기 삶의 이념으로 받아들인 개인으로 구성된 것이다. 공동선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시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며 개인의 선은 시민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의무를 다할 때 증진된다.

- ① (가)는 시민을 개체적 존재라기보다는 사회적 존재로 본다.
- ② (나)는 정치 참여를 통해 시민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동선을 위한 개인의 헌신을 강조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부여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18.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두 개의 사랑에 의해서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된다. 지상의 국가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으며 천상의 국가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다. 전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신을 경멸함으로써, 후자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경멸함으로써 형성된다.

을: 신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법칙의 원인이자 처음이다. 진리에 대한 모든 앎은 제1원리들을 부여한 신에 의해서 주어졌다. 따라서 모든 법칙이 올바른 이성으로부터 통찰된 것이라면 그것은 신의 영원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 ① 갑은 악을 선의 결핍이 아니라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신을 종교적 체험을 통한 실존적 만남의 대상이라고 본다.
- ③ 을은 실정법이 신의 영원법과는 무관하게 제정된다고 본다.
- ④ 을은 종교적 덕의 성취는 인간의 이성적 통찰로 완성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신의 의지로부터 자유로울 때 지복(至福)이 가능하다고 본다.

1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의로운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저마다 자신의 맡은 일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국가 내의 세 계층이 남의 일을 하거나 넘보는 일이 없으며, 음계의 세 음정처럼 각 계층이 자신의 일을 잘 조절하고 화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는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된다. 이러한 사회는 모두가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회의 기본 제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

- ① 갑은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계층에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갑은 민주정(民主政)을 이상적인 국가의 통치방식이라고 본다.
- ③ 을은 합의에 의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적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정의로운 사회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계층 간 역할 교환에 대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전쟁은 인간을 각국의 이해관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맹의 창설과 보편적 우호의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시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나) 전쟁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각국은 힘의 원리에 따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행동하므로 국가 간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X: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 Y: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하는 정도
- Z: 국제법의 준수를 통한 평화 유지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